

# 경관용 유채 기능성 식품소재로 활용

### 농진청, 부가가치 높일 수 있는 착유방법·식재료 활용법 개발... 3배 이상 농가소득 향상 효과

'봄의 전령'으로 불리며 경관용으로만 재배되던 유채꽃을 기능성 성분이 풍부한 식품 소재로 활용해 농가 소득 향상에 일조할 수 있게 됐다.

국내에서 재배되는 유채는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품종으로 '탑미유채', '달라유채' 등이며, 기름함량은 45%, 올레인산 함량은 65% 이상으로 높은 편이다.

또한 인체에 해로운 에루신산이 1% 이내로 식용에 적합하다.

국내에서 유채는 주로 경관용 또는 지자체 유채꽃 축제를 목적으로 재배되고 있다. 유채꽃이 지면 대부분 버려지기 때문에 유채의 폭넓은 산업적 이용과 고부가 가치화에 대한 연구가 요구돼 왔다.

농촌진흥청은 버려지던 경관용 유채를 식용 기름으로 가공해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착유방법 및 식재료 활용법을 개발했다.

유채 씨앗을 생(raw)으로 바로 착유

하거나, 볶아서(roasted) 착유한 압착유는, 흔히 쓰이는 정제유에 비해 기능성 성분이 풍부하며, 유채 고유의 맛과 향을 느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저온압착 유채유와 볶은 유채유는 국산 유채 씨앗을 사용해 신선하고 안전하며, 기능성 성분이 풍부한 고급 식용유다.

생으로 착유한 유채 씨앗에는 항산화물질인 토코페롤(59mg/100g)과 심장을 건강하게 유지시켜주는 식물성 스테롤(280mg/100g)이 함유돼 있다.

유채 씨앗을 140°C에서 15분간 볶아서 착유하면 고소한 향이 더욱 진해지고, 생으로 착유할 때보다 2.5배 많은 토코페롤 추출량을 얻을 수 있으며(149mg/100g), 항산화효능은 4배 이상 증가했다.

저온 압착유는 샐러드유, 양념유, 소스류 등 다양한 요리에 활용할 수 있으며, 볶아서 착유한 기름은 참기름, 들기름만큼 고소한 향이 뛰어나 음식

의 풍미를 살리는 데 활용성이 높다.

농촌진흥청은 유채기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식문화연구소 '마당'과 공동으로 유채기름 디핑소스 제조방법을 개발해 지난해 특허 출원을 완료했으며, 올해 초 산업체에 기술이전을 했다.

저온압착 유채유를 넣은 디핑소스는 식물성 지방(저온압착 유채유)과 탄수화물(고구마)을 적절히 섞어 만든 소스로, 시간이 지나도 내용물이 분리되지 않고 부드러운 소스의 맛을 느낄 수 있다.

디핑 소스는 스테이크샐러드 소스, 샌드위치 스프레드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으며, 특히 육류요리, 비건 요리 등에서 특색 있고 영양이 있는 식재료로써 활용도가 높다.

대규모 경관용 유채를 식품 소재로 활용하는 등 유채의 고부가 가치를 높이는 '유채 자원순환 모델'을 실제 전남.경남지역에 현장 적용한 결과, 3

배 이상의 농가소득 향상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진도.해남, 50ha)과 경남(창녕.합천, 100ha) 현장 거점 단지를 육성해 유채 기름을 생산하고 착유부산물인 유채박을 재활용한 결과, 농가 소득이 3배 증가했다.

국내 경관용 유채 총 재배 면적인 3,370ha에 유채 자원순환모델을 적용했을 경우, 경제적 가치는 약 170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농촌진흥청 바이오에너지작물연구소 이영화 박사는 "눈으로만 즐기고 버려지던 경관용 유채를 씨앗 수확을 통해 유채 기름을 생산하면 유채 자원의 고부가 가치 창출과 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며, "수입산 식용유를 대체할 기능성 성분이 풍부하고 친환경적인 국산 유채기름 공급을 통해 국민건강 증진 연구에 더욱 힘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 중기청, 전통시장 봄내음 축제 개최

### 5월 14일까지... 문화공연·체험행사·특가판매

봄 여행주간과 연계해 전통시장만의 특색과 테마를 살려 다양한 행사가 진행된다.

중소기업청은 29일부터 5월 14일까지 전국 전통시장 200여곳이 참여하는 '2017 전통시장 봄내음 축제'를 개최한다.

이번 축제는 봄, 여행,관광, 축제, 체험을 접목해 전통시장의 매력도를 높이는 것으로, '봄 여행주간'과 연계했으며, '떠나오 봄여행, 즐겨요 봄시장'이란 슬로건 하에 전통시장만의 특색과 테마를 살린 문화공연, 체험행사, 경품이벤트, 특가판매 등 다채로운 행사가 추진된다.

또한, 축제기간 중 2주간 전통시장에 대한 고객들의 불편사항으로 꼽혀 왔던 3대 분야의 대 고객서비스 제고를 위해 상인단체가 주도하는 '고객서비스 3대혁신 운동'도 병행된다.

이번에 참여하는 지역 전통시장 200여곳은 인근 볼철 관광지, 지역 테마 축제 등과 연계해 축제기간 중 자율적으로 5일 내외로 참여하며, 다양한 볼거리, 즐길거리, 살거

리를 제공한다.

특히, 전국 16개 거점시장은 시장별 특성을 반영한 포토존 설치, 숭사탕 무료 제공과 함께 차별화된 행사와 이벤트로 축제분위기를 선도하고 일반시장으로 확산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전북도에서는 전통시장 11곳이 참여하며, 특히 전주남부시장에서는 국제영화제 연계 영화열차와 미션투어 등이 진행된다.

아울러 이번 '전통시장 봄내음 축제'를 온국민이 어우러져 즐기는 잔치로 만들기 위해 행사에 미참여하는 전통시장까지 포함하는 '전국 전통시장 방문 인증샷 이벤트'도 추진해 이번 행사의 온기가 전국의 모든 전통시장까지 파급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전북중소기업청 정원탁 청장은 "이번 축제가 지속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에 활력을 제공하는 한편, 지역사회의 테마가 있는 매력적인 공간으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 특성화고 대상, 나노융합기술인력양성 참여 학생 모집

### 5월 12일까지... 취업역량 강화·장비 실습 교육

전북도와 전자부품연구원 전북분부는 특성화고를 대상으로 '나노융합기술인력양성사업'에 참여할 학생들을 5월 12일까지 모집한다.

'나노융합기술인력양성사업'은 전북 지역 내 특성화고 학생들의 취업률을 제고하고 나노반도체 분야의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고자 2012년부터 6년째 추진중이다.

2012~2016년까지 교육 성과를 보면 총 교육인원 143명 중 110명이 취업

(취업률 77%)했고 주요 취업회사는 (주)엘지에스, 읍도웰, 뉴파워프라이즈, 광전자, SFC, 현대중공업, 나노솔루션, 나노스케이, 네오뷰코오롱, 에스엠플러스 등이다

교육생 선발 단계부터 기업체 인사담당자가 참여해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선발하고 장비 실습과 기업의 기술수요를 연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해 교육생의 현장적응력을 높이는 등 교육생과 기업체 모두가 만족

하는 교육프로그램을 편성해 운영하고 있다.

주요 교육과정으로는 인성과 역량을 겸비한 '취업역량 강화 교육 과정'과 산·학·연 전문가를 중심으로 운영하는 '전문 이론 교육 과정', 기 구축된 장비를 활용해 실습하는 '공정·장비 실습교육 과정' 등이 있다

또한 교육생 1명을 연구원의 석박사급 전문가 2명과 1:2 멘토로 연결해 교육생들의 고충이나 애로를 덜어주고 기업현장에서 장비운영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인재용 기자

이 사업은 나노반도체업계의 인력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청년일자리 창출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으며, 특성화고 학생들에게 전문직업교육을 통한 취업지향과정으로 인기 만점이다.

지난 5년간 나노융합기술인력양성 과정을 수료한 후 취업한 연수생들의 79%가 도내 기업에 취업했으며 전북도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가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교육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자부품연구원 이희준 연구원(063-219-0110)에게 문의하면 된다.

/인재용 기자



전북농협, 초등학교 농업 체험장 조성사업 추진

## 새만금 남북도로, 1단계 기본 설계 완료

새만금 남북도로 1단계 건설 공사의 기본 설계를 완료했다.

남북도로 1단계 3공구는 대립산업·포스코 건설·대우건설이, 4공구는 현대건설·롯데건설·SK건설이 기본설계 기술제안서를 제출했다.

남북도로 1단계 사업은 총 연장 12.7km(3공구 3.0km, 4공구 9.7km)를

6~8차선까지 건설하는 사업으로, 2022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새만금개발청은 오는 26일 기술제안서를 제출한 6개 업체가 참여한 공동설명회를 개최하고, 5월 10일 설계 검토회의와 5월 18~20일 설계 평가회의를 거쳐 5월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인재용 기자

## 경진원, 일자리 매칭사업 '구인업체 발굴단' 운영

전북도와 전북경제통상진흥원은 도내 일자리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양질의 일자리 매칭사업 추진의 일환으로 '구인업체 발굴단'을 운영한다.

'구인업체 발굴단' 운영으로 일자리 센터의 게이트웨이 역할을 수행해 도내 기업체와 구직자가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북도 일자리종합센터를 적극 홍보함으로써 사업체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등 운영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구인업체 발굴단은 올 11월 말까지 도내 우량기업을 선정해 매 주 방문을 계획하고 있으며, 연간 약 130여개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구인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또한 근로환경과 업무강도 및 채용 계획 등을 세밀히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인·구직 알선과 취업상담을 실시하는 등 사업장과 구직자의 연계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인재용 기자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북농협과 전북도청, 전북교육청, 기초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초등학교 농업 체험장 조성사업(스쿨팜 사업)이 전주, 군산, 익산 관내 40개 초등학교에서 조성된다.

전북농협에 따르면 올해에는 지난해보다 4개교가 증가된 40개교에서 스쿨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며 19일 전주 흥산 초등학교를 시작으로 농작물의 파종을 시작했다.

이날 체험에 참여한 5~6학년 학생 50여명 학생들은 학교 분관 건물 뒤편 공간을 새롭게 변형한 텃밭 체험장에서 감자, 고구마, 상추, 옥수수, 토마토, 가지, 고추 등 채소 10여종을 직접 심는 식재체험을 즐겼다.

6학년 박민혜 어린이는 "지금 심은 토마토가 다 자라면 점심 급식 때 친구들과 맛있게 나눠 먹겠다"며 좋아했다

또 5월 하순부터는 별도공간에 텃밭 상자를 활용해 버 체험장을 조성하고 2학기에는 김장채소를 재배할 예정이다.

강태호 본부장은 "자라나는 도시의 어린이들이 생명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스쿨팜 체험을 통해서 협동정신을 배워 건강한 어린이로 자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 우리동네 무인주차장 어디에 있을까?

주차하고 구경하고 무인주차장에 주차하면 시간도 절약되고 편리합니다.



### [전주시 무인주차장 안내]

- 서부신시가지 도청영**  
전주시 완산구 흥산북로 75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노송천 주차장**  
전주시 노송여울2길 108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덕진광장 주차장**  
전주시 덕진구 덕진광장로 3 (239-2562)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실내체육관 주차장**  
전주시 덕진구 권삼덕로 308 (251-1264)  
(연중무휴) 4,000원 기본(30분):500원, 추가(15분):250원
- 서부신시가지 농협중앙회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북로 53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서부신시가지 다은병원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2길 5-12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서부신시가지 KB은행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1길 4-13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